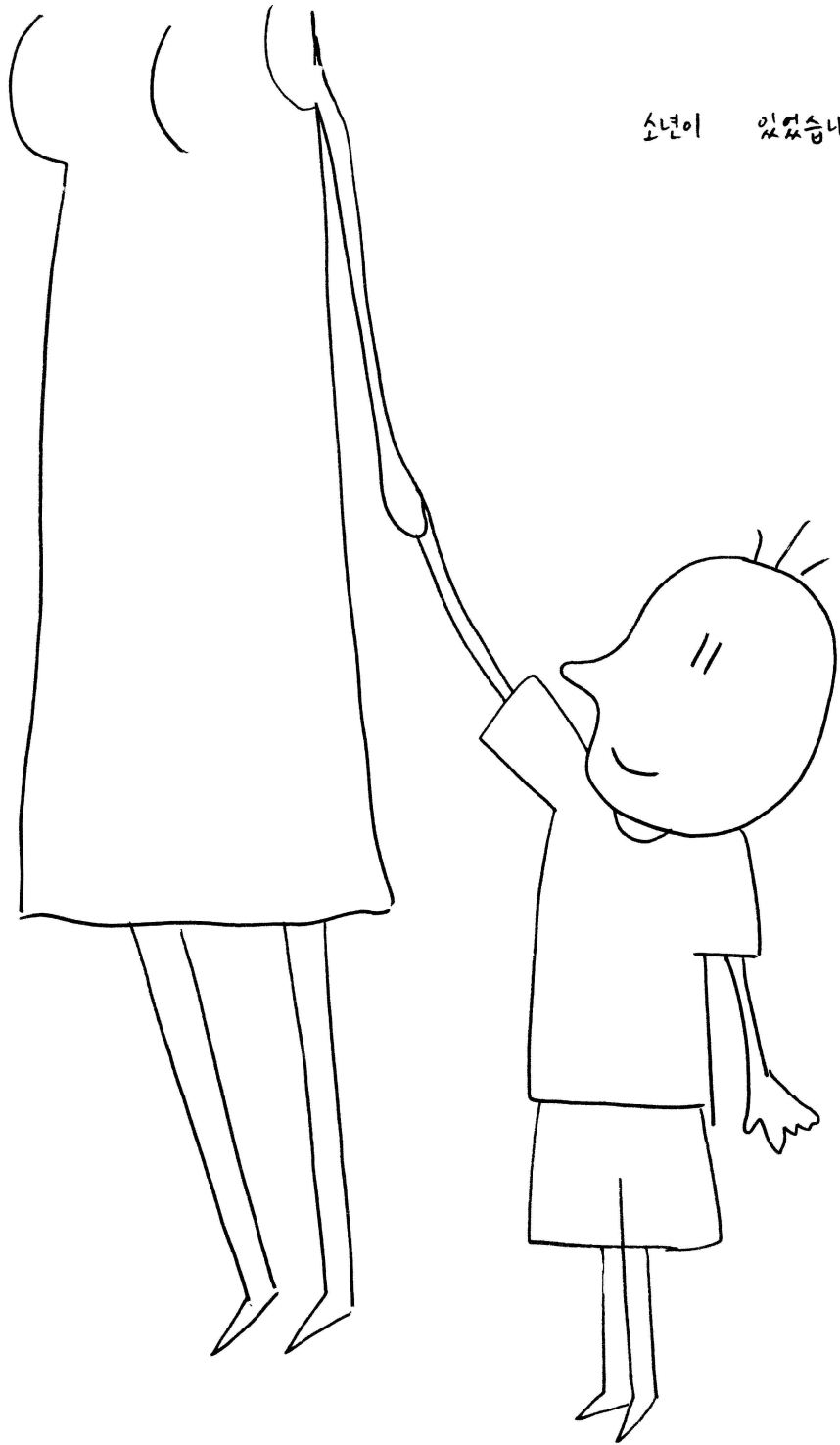


1/2

H₂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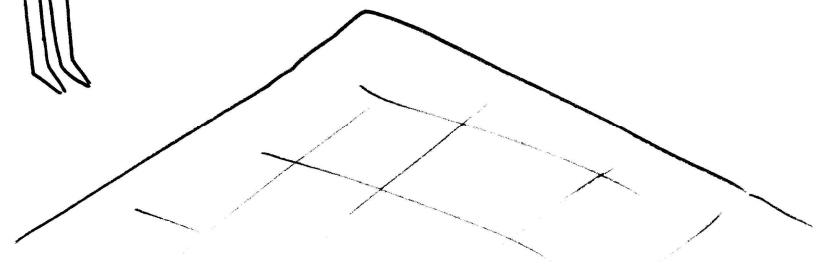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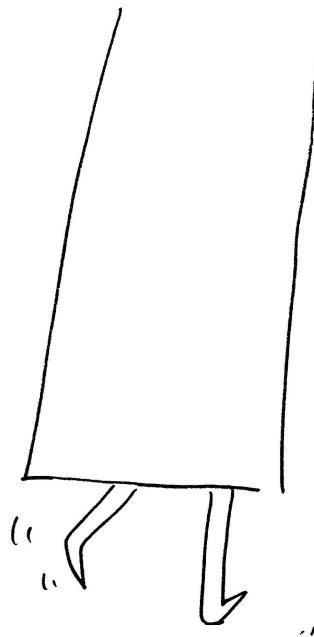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란 길 앞에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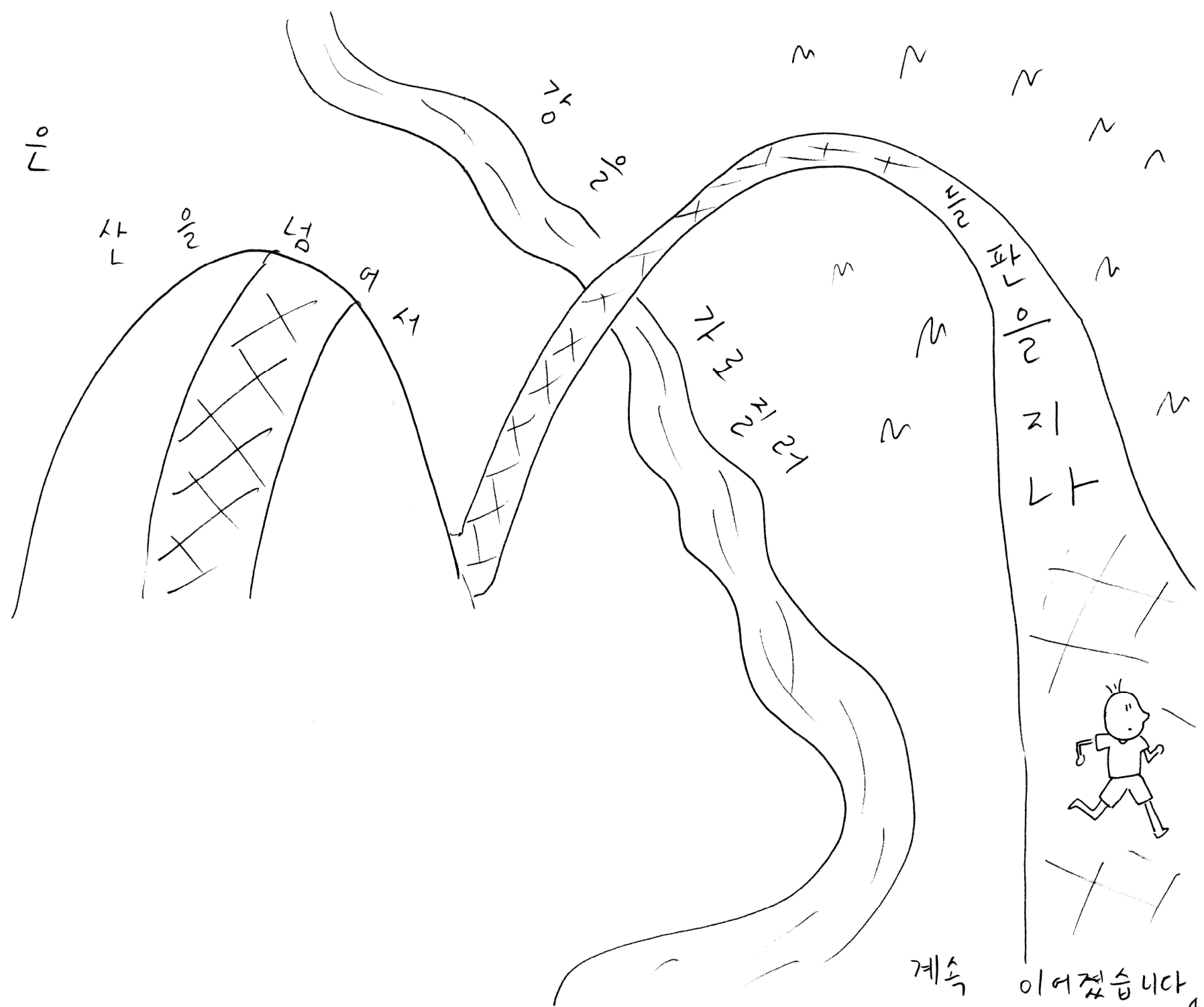


"자, 이제부터
혼자서
가는 거야."



소년은 용감하게 노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
 란
 길
 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더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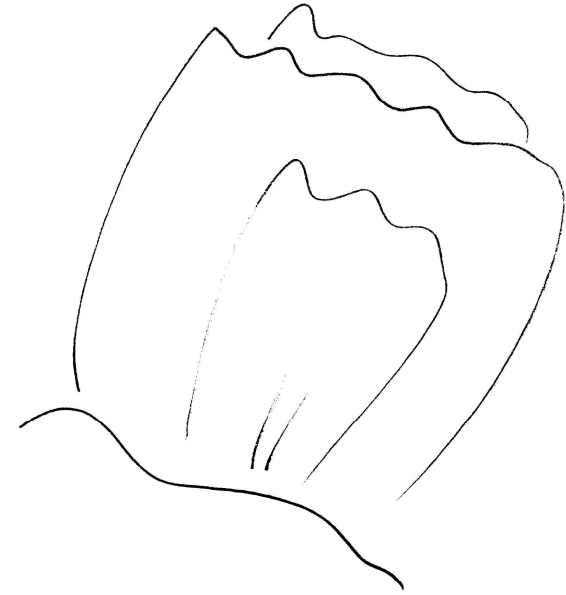
노란 길의 끝엔 갈래길이 있었거든요.

길가엔 상추 한 포기 심어져 있었습니니다.



소년은 상추에게 물었습니다.

"상추야, 나는 빨간 길로
가야하니? 파란 길로
가야 하니?"



상추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나도 모르겠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추가 말했습니다.

"이봐, 난 여기 심어져 있을 뿐이라네.

움직일 수도 없는 내가 어떻게 알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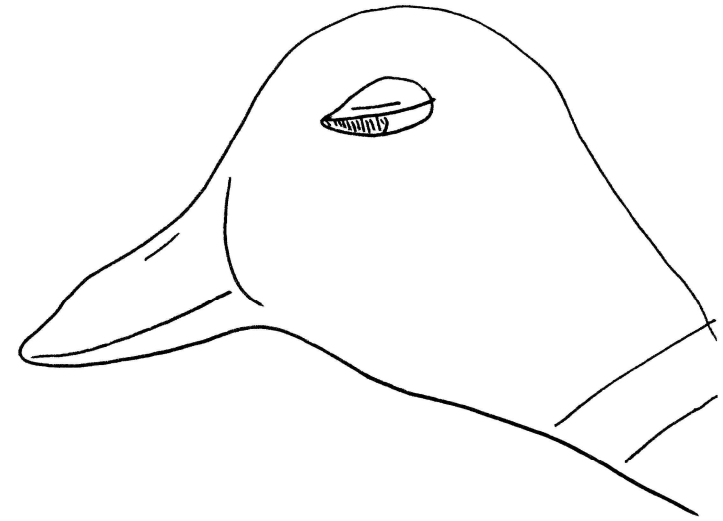
8

7

하지만 소년은 더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빨간 길의 끝엔 갈래길이 있었거든요.
 길가엔 기러기 한 마리가 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기러기에게
 물었습니다.
 "기러기야, 나는 검은 길로
 가야 하니? 하얀 길로
 가야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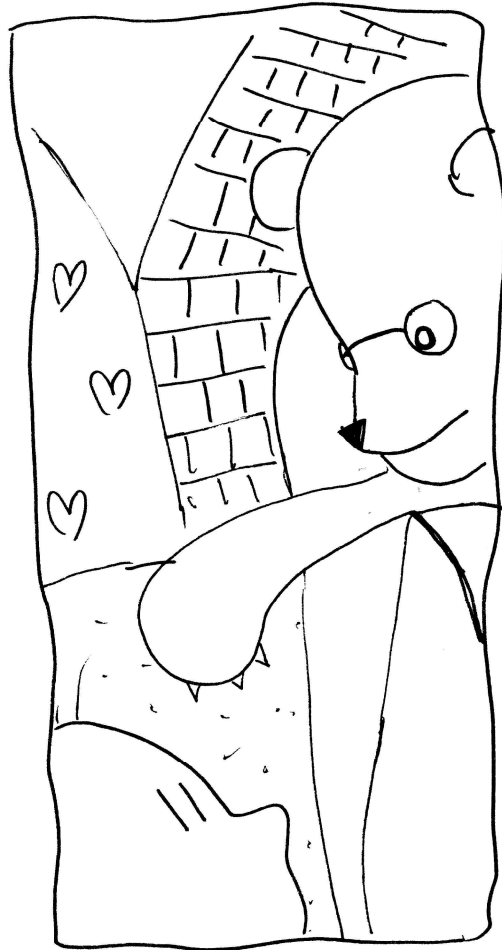


기러기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는데?"
 "나도 모르겠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러기가 말했습니다.
 "이봐, 내가 북쪽으로도 가보고 남쪽으로도 가 봤지만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녀석에겐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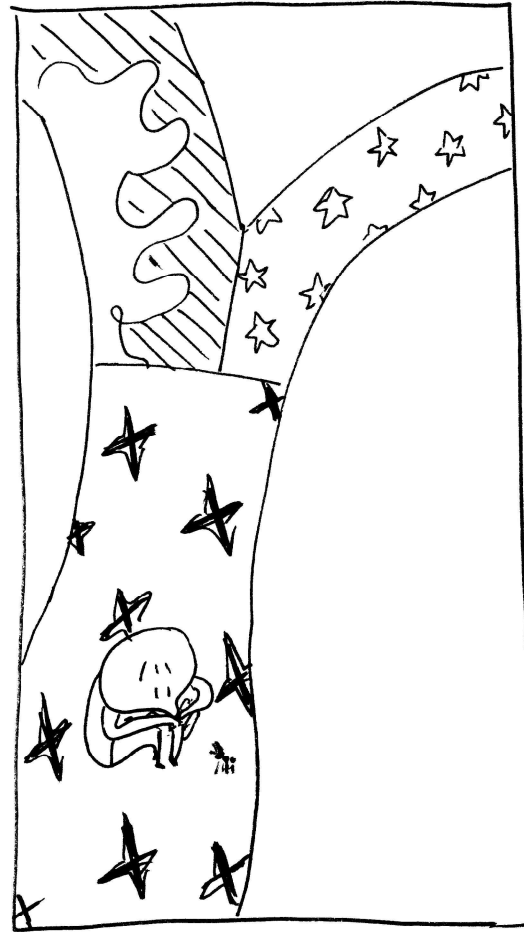
소년은 하얀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소년은



문 고



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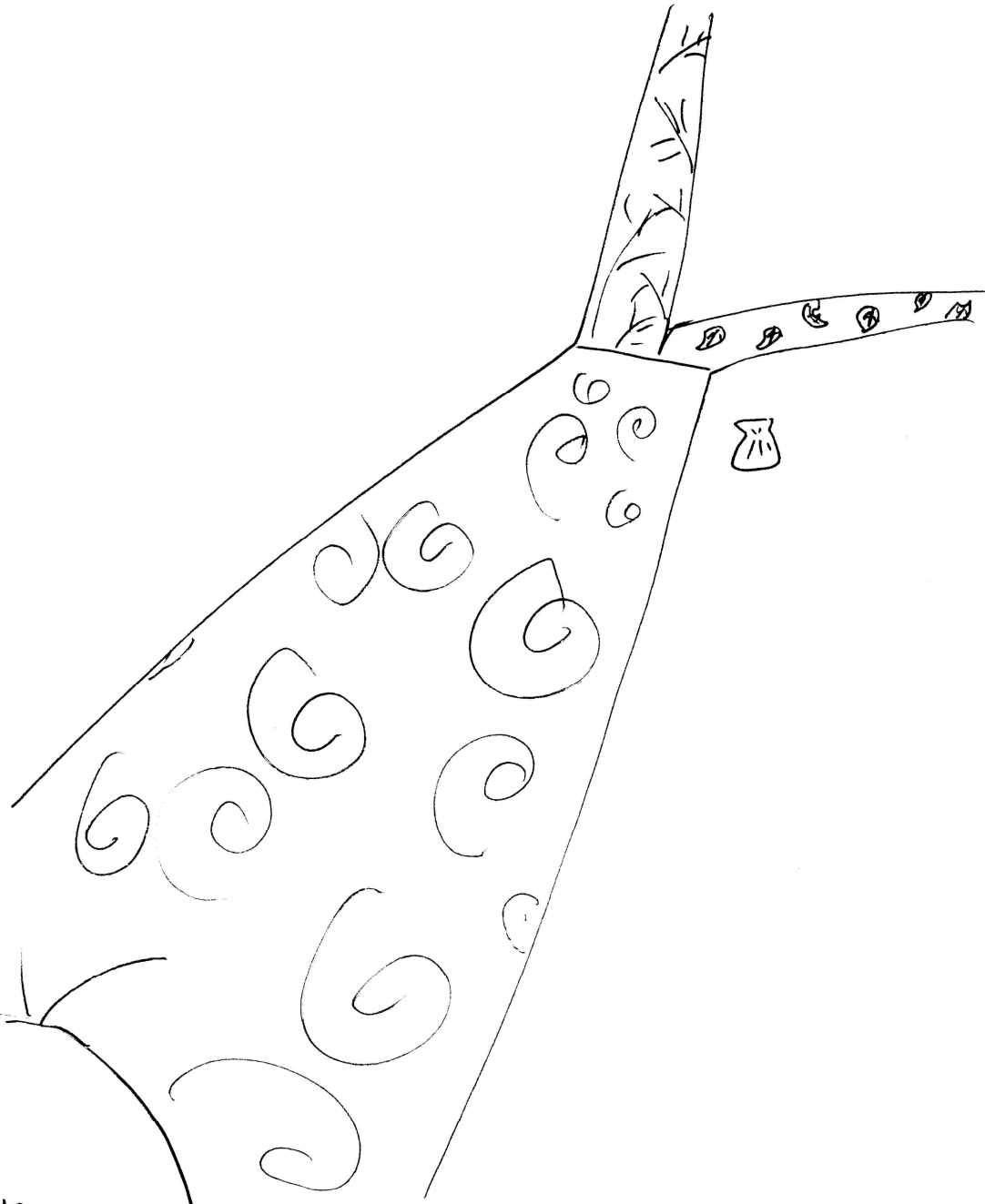
또 문였 지 만

소년이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길가엔 조개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안녕, 어린친구."

조개가 말했습니다.

"난 네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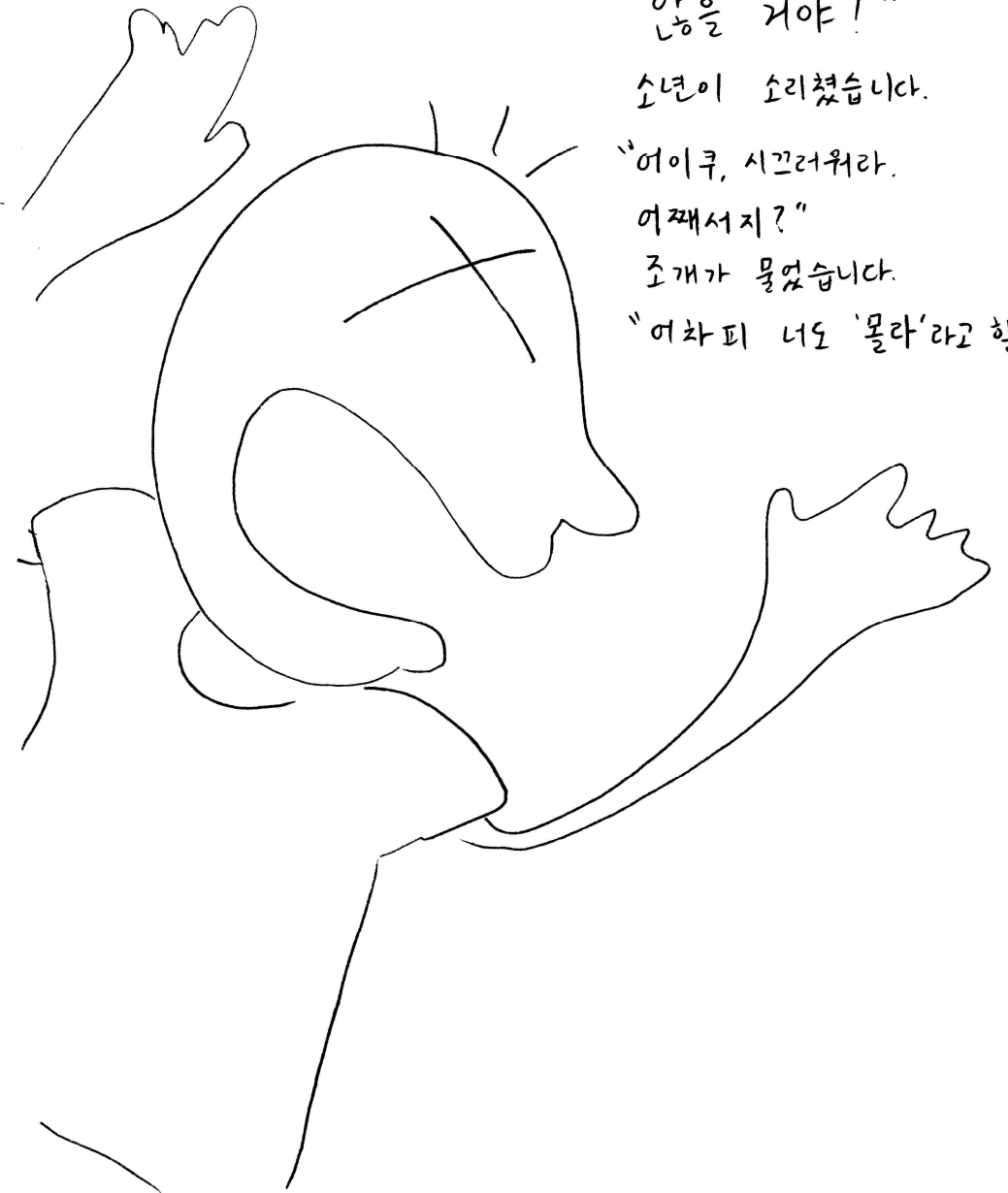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어이쿠, 시끄러워라.

어째서지?"

조개가 물었습니다.

"어차피 너도 '몰라'라고 할테니까"



"오, 이런. 오, 이런."

조개가 말했습니다.

"넌 매우 무례한 꼬마로군."

조개가 투덜거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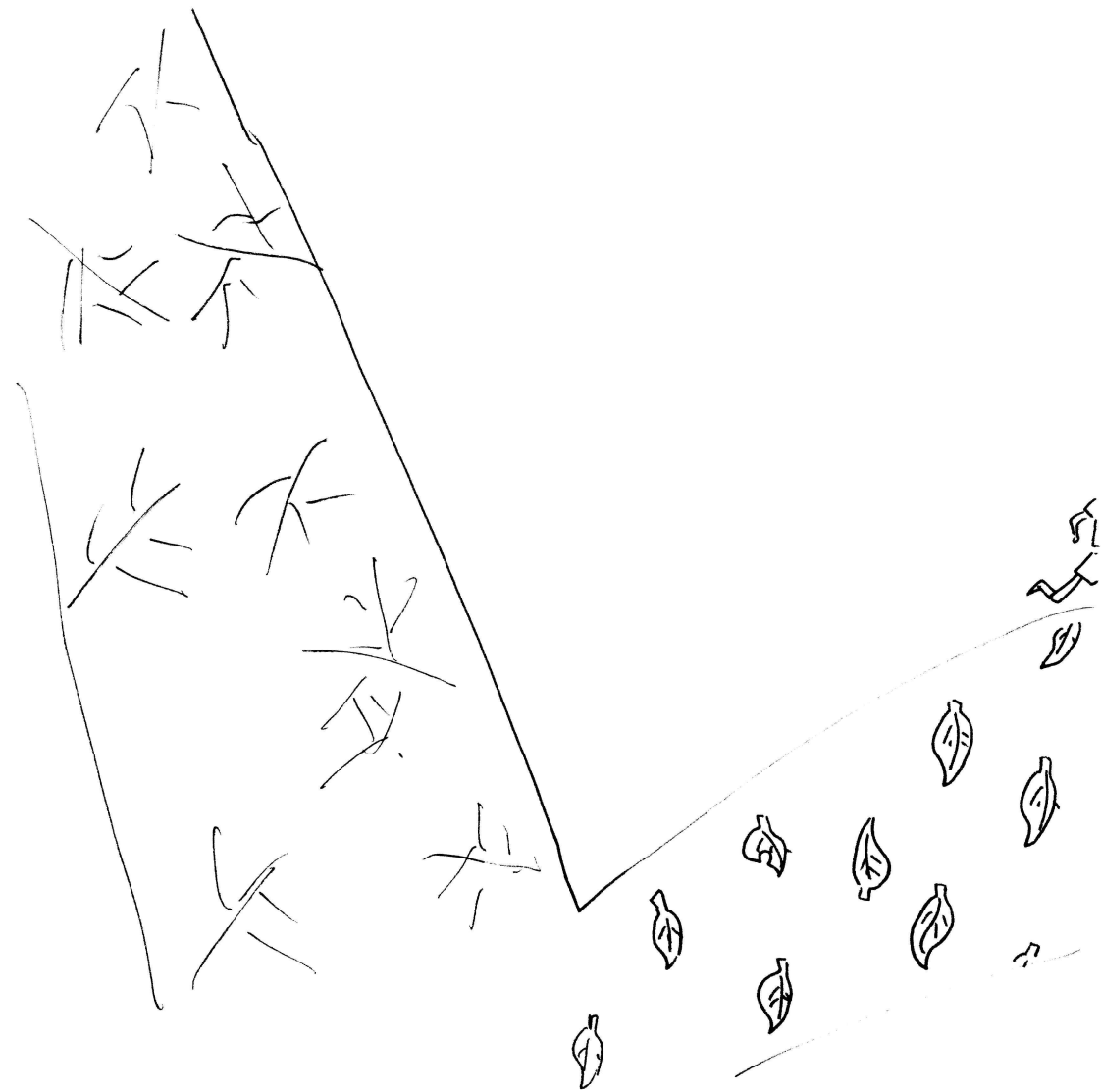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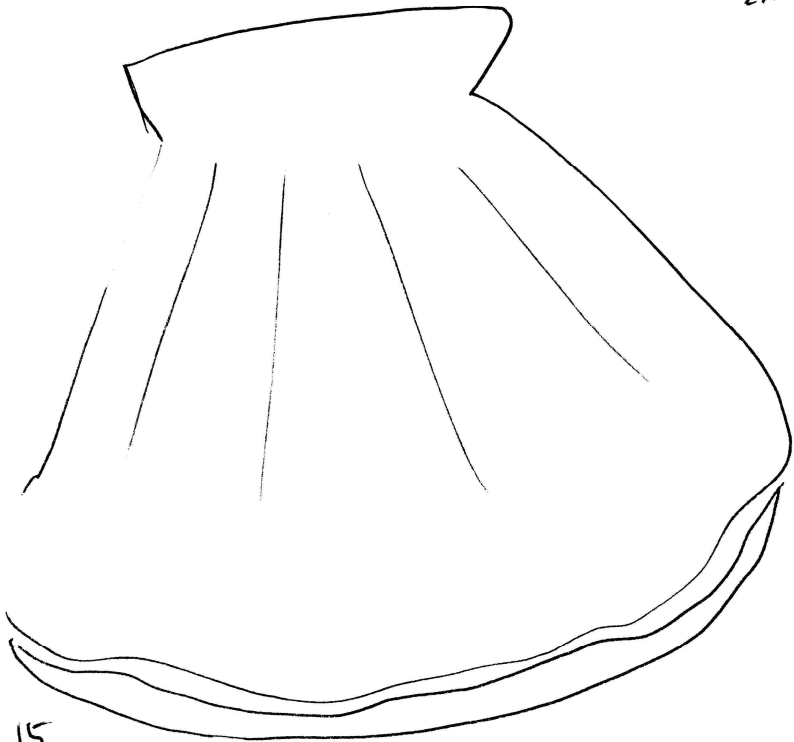
"미안해."

소년이 사과했습니다.

"이봐, 내 딱딱한 껍데기
보이지? 난 이 껍데기로 아름다운
진주를 몇 년씩이나 품고
있었던 말이지. 난 뭐든 잘해."

"그럼 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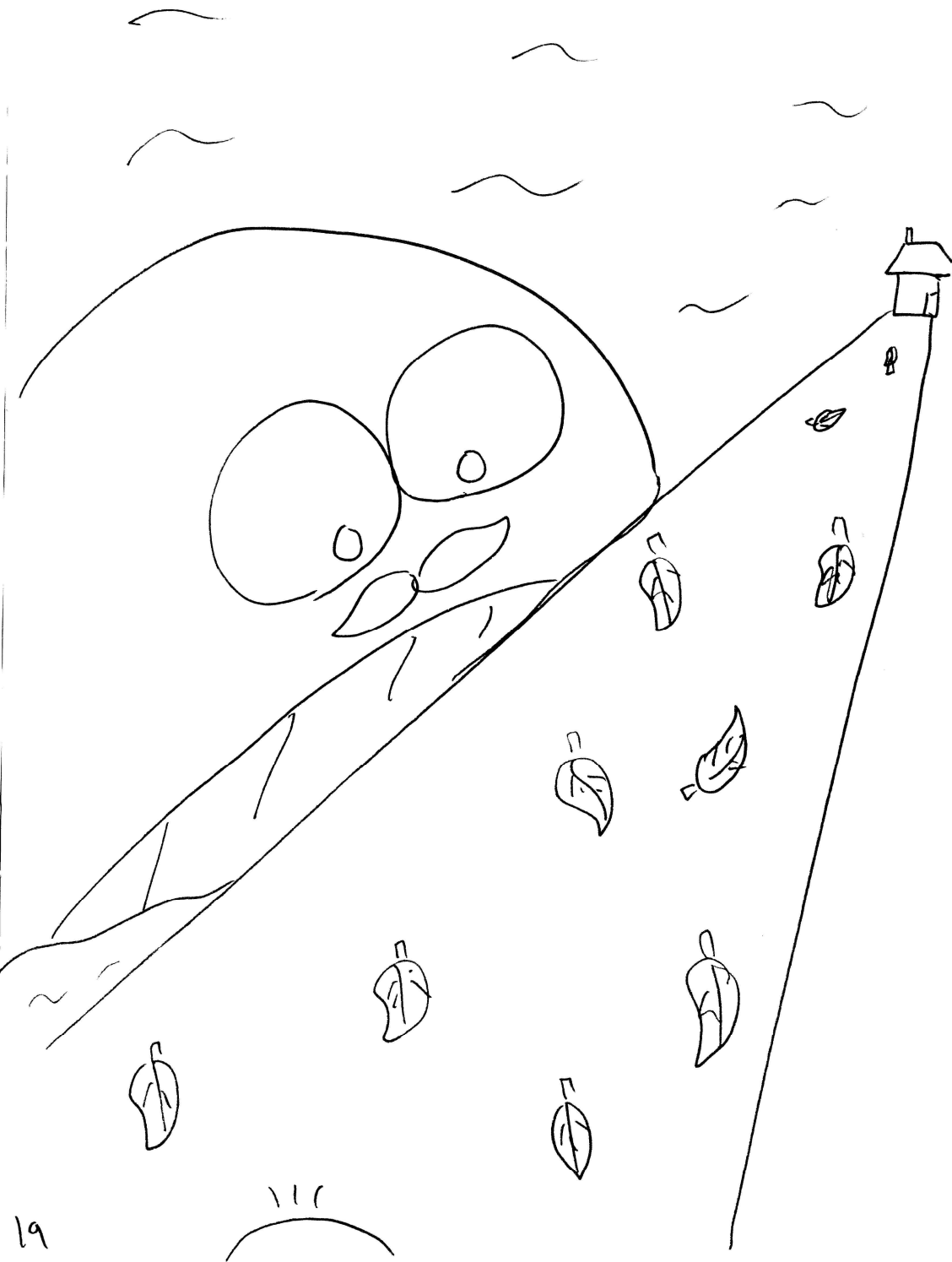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건 쉬워. 아마 저 나뭇잎이 그려진
길을 따라가면 될 거야. 모두 거기로 갔거든."

"누가?"

"여기 났었던 사람들이."



"안녕? 반갑구나."

네가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고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를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제가 가야할 곳을 아시나요?"

"그럼, 알고 말고!"

할아버지가 꺄꺄 웃었습니다.

"이 길 끝에 있는 집으로 가면 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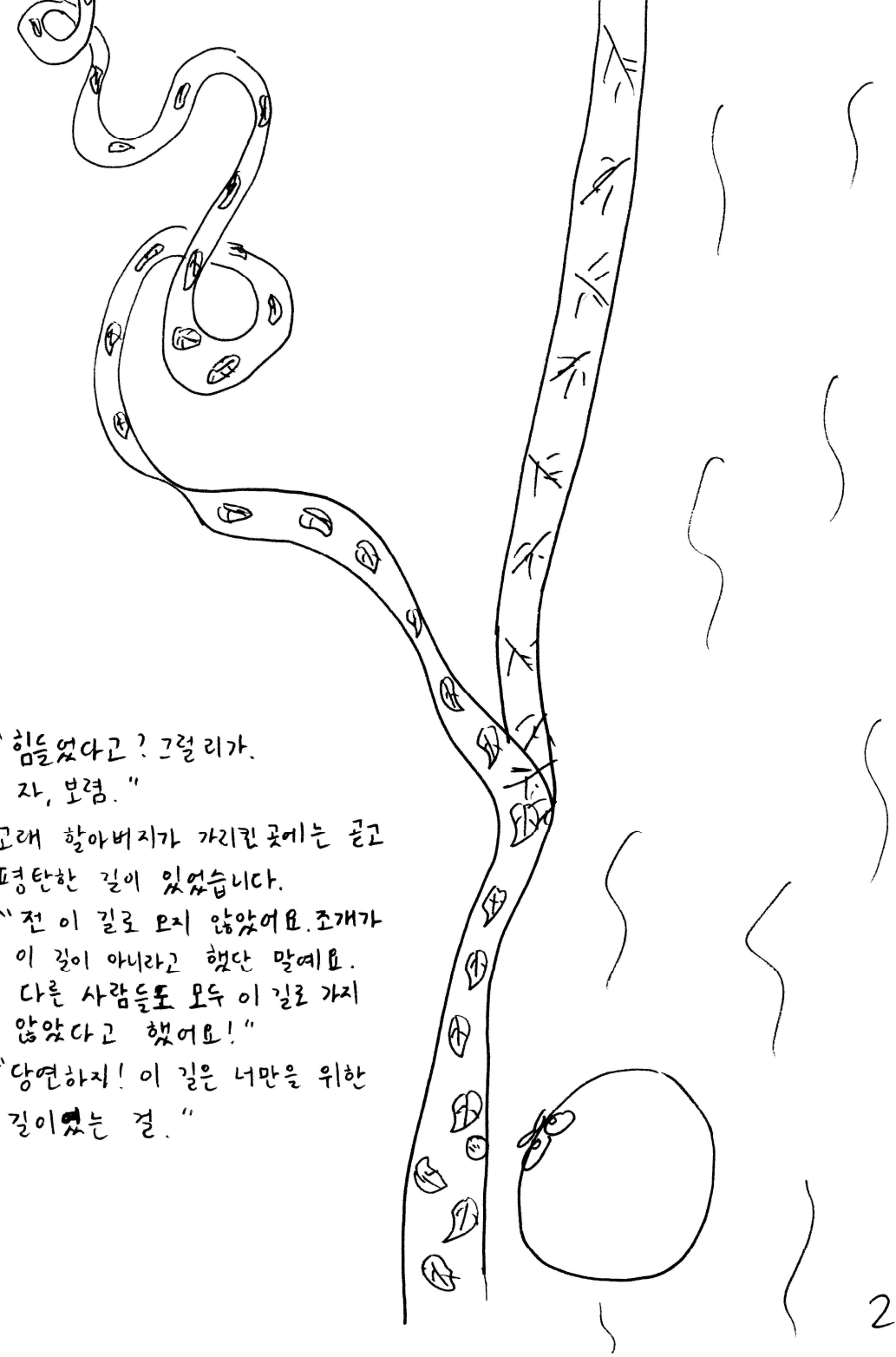
그러면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

"그게 뭐죠?"

"행복이란 다."



"고작 행복이라고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따라온 길 끝에 고작
행복이 있다고요?"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힘들었다고? 그럴리가.
자, 보렴."
고래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곧고
평탄한 길이 있었습니다.
"전 이 길로 모지 않았어요. 조개가
이 길이 아니라고 했던 말예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 길로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당연하지! 이 길은 너만을 위한
길이였는 걸."

"어리석은 아이야, 그것은 네 길이
아니었다." "

"하지만" "

"자, 두덜이 아이야. 불포킹은 그만 하고
어서 이 길을 따라가렴."

너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잖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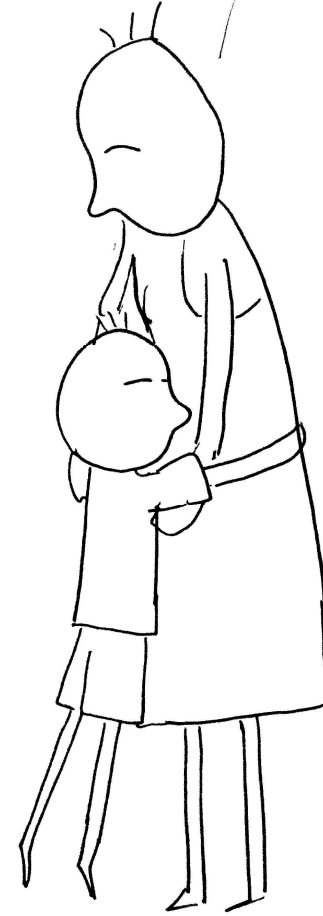
고래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년이 길을

따라가자...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따뜻하게

소년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소년은 행복했습니다.